

광주, 시민참여·소통·인권·문화 역점 전남, 버스도 공장용지도 '무상 시리즈'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공약 살펴보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공약도 많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실현 불가능 공약도 눈에 띈다.

◇광주시장=새누리당 이정재,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강운태·이용섭·이병완 후보 등 7명의 광주시장 후보들은 시민참여와 소통, 인권·안전, 경제·일자리, 문화 공약이 주를 이뤘다.

윤장현 후보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총괄하는 시장직속 기구와 시민참여·자치 광주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또한 시민발의 안전 주민투표(전자투표) 회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전수 조사, 상향식 토론형 반상회 운영 등 시장 권한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강운태 후보는 시장 권한을 자치구, 공사·공단, 직능·민간단체에 대폭 위임, 위탁하기로 했다.

강 후보는 시민이 아이디어 공모, 시민여론조사, 민관합동위크숍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마을공사 현장 시민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참여 실효성을 높여기로 했다.

이용섭 후보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시장제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권·안전 관련 공약으로, 윤 후보는 독립기구 형태의 광주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 인권위원회 광주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시 직할 안전교육체험센터 등의 설립도 약속했다.

강 후보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김대중인권대학원 대학을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채무회생청산상담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채무조정과 대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취약계층지원분부를 설치해 자치구별로 공동체 돌봄 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낯은 위생설비, 난방, 방수시설 등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좋은 일자리 1만 개, 강 후보는 기업유치(500개)를 통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빛고를 소멸펀드 70억원을 조정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100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윤 후보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지역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 구축, 강 후보는 7개 문화권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이 후보는 문화부시장제 도입, 문화예술지원본부 설치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 이 후보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선진형 교육시스템 모델 개발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저소득층 등 교육 공약을 전면내 세웠다. 통합진보당 윤 후보는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농민에게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노동당 이병

훈 후보는 빛고를대중교통공사 설립을 강조했다. 무소속 이병완 후보는 임산부 무상교통,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노인·어린이 24시간 SOS 센터 설치, 노인일자리 1만2000개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남지사=전남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무상'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종호(53) 후보의 공장 부지 50년 무상임대, 노인 군내버스 무료, 통합진보당 이상수(45) 후보의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및 무상호도 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61) 후보의 100원 택시 등도 이 범주 내에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일단 시선을 끌 수 있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 검증 절차가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 후보의 공약은 4대 분야 11개 세부사업이다. 중소기업 경영인담겨 경

제 관련 공약이 6개로 절반 이상이다. 기업유치로 도나 지자체 소유 부지 50년 무상임대, 에너지 바이오, 의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구축, 동서 균형투자,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등을 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후보는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6대 전략과 22개 시군별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 도민과 소통, 도지사 업무 평가, 제2도청사 설치, 공정한 인사·사업, 공직자 창의적 업무 지원 등 5대 도정 혁신도 내놨다.

생명의 땅, 전남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활로 찾기, 저비용 고속도로 농업 구조로 개편, 섬과 갯벌 등 관광명소 조성 등 중국 관광객 유치 등도 담겼다.

5대 공약을 제시한 통합진보당 이상수 후보의 공약은 파격 그 자체다.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매달 154만원씩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도비와 국비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권철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대 공약을 제시한 통합진보당 이상수 후보의 공약은 파격 그 자체다.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매달 154만원씩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도비와 국비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권철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장 빅3 분야별 공약

4대 분야	윤장현	강운태	이용섭
시민참여·소통·혁신	·시민참여·자치 광주시민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예산제·평가제·감사제 확대 운영	·시장 권한 공사·공단, 직능·민간단체에 위임 ·개발형 공모직위에 시민 추천제 도입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시장제 및 정책배심원제 도입 ·정책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인권·복지·안전	·광주인권위원회 구성, 아시아인권위원회 광주분소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김대중인권대학원 건립 ·안심키가 콜센터 운영	·시장 직속 취약계층지원본부 설치 ·도시재난안전사업단 발족
경제·일자리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협동조합과 청년기업 육성	·일자리 18만개 창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	·광주도시마케팅공사 설립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확대
환경·문화	·타당성조사후 송촌보 철거 ·아시아 각국 문화원 유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세계제조조선수권대회 유치	·문화부시장제 도입 ·한국과학기술(CT)연구소 설립

■전남지사 후보 공약

	이종호	이낙연	이상수
5대 공약	·지자체 소유부지 50년 무상임대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청년·노인·다문화가족일자리 창출 ·노인 군내버스 무료 이용 ·제2 남도학술 건립	·4대 권역별 시군 맞춤형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버스준공영제 단계적 도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제2 전남도청사 설치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월 154만원씩 생활임금 보장 ·쌀소득 23만원(80kg) 보장 ·한중 FTA 전면 중단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2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무소속 시민의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래·울동 대신 툭툭튀는 플래카드... 선거운동 대신 지역구 청소... '타요 버스'도 등장

선거운동 첫날 유세 현장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노래와 울동,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자, 툭툭튀는 플래카드 문구로 표심을 유혹.

전남대 후문 주변, 백운동 로터리, 두암타운 사거리, 흑석 사거리, 서구문화센터 사거리 등 광주 시내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곳곳마다 10개 내외의 플래카드가 등장.

무소속인 오형근 동구정장 후보는 조선대 정문 사거리에서 자신의 딸인 은경이의 이름을 넣은 '은경이는 동구를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통합진보당 권민영 동구정장 후보는 본인이 대학생인 점을 강조해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문제 해결할 진짜 대학생 후보'라는 문구로 젊은층의 표심 잡기에 주력.

○강진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요란한 선거 운동 대신, 지지

자들과 함께 강진을 일대를 청소해 눈길.

22일 오전 강 군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5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 강진읍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강 군수는 또 지지자를 호소하는 로고송도 만들지 않는 등 차분한 선거 운동을 전개할 계획.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타요 버스'가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해 아이들로 부터 큰 인기. 여수시의회 제4선거구에 무

소속으로 출마한 문갑태 후보는 25인승 버스를 임대·개조해 '타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버스를 장식해 유권자인 부모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의 발길 잡기에 성공. 문 후보는 "유세자를 대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울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타요 버스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LIRIKOS

MARINE COLLAGEN V AMPOULE

ANTI-WRINKLE SPECIAL PROGRAM

마린콜라겐으로 꼭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본셀룰로오스 제형으로 피부에 밀착력 높고 수분 보유력이 우수합니다. *구입처 문의: (주)리리코스 대표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